

초저금리시대 은행 주가연계상품 투자 주의보

자금 몰려 울들어 5조원 넘게 팔려...작년말보다 56% 급증 주가 폭락엔 100% 날릴수도...2008년 대규모 원금 손실

정기예금의 실질 금리가 연 2.0%에도 못 미치면서 초저금리를 견디다 못한 고객들이 주시시장과 연계된 예금 대체상품으로 몰려들고 있다.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런 상품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전력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 주가 연계상품 울들어 5조원 넘게 팔아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농협, 외환, 하나, 기업, 우리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주가연계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 상품을 무려 5조3200억원 어치나 판매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잔액은 14조8346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말의 9조5146억원보다 56%나 급증한 수치다.

A은행은 올해 1~9월 판매액이 3조원을 넘었으며, B은행도 1조원이 넘는 주가연계상품을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기초로 해서 만든 상품이다.

한국, 유럽, 중국 등 3개국의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대부분이며, 이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예를 들면 국민은행의 대표 주가연계신탁은 이들 3개국 주가지수가 만기까지 한번이라도 최고 가격의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5.9%의 세전이익을 보장한다.

신한은행 상품은 3개국 주가지수 중 2개를 골라서 주로 만들어지며, 2개국 주가지수가 모두 최저 가격의 6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5~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예·적금 금리가 연 2%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점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초

반까지 떨어지면서 예금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 상품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위험 아닌 ‘고위험’ 상품...“2008년 대규모 원금손실 전례”=문제는 이들 상품이 ‘중위험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판매 상품을 5개 등급으로 나누는 투자위험등급에서 이들 상품을 2등급인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고 투자위험등급인 ‘매우 높은 위험(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할 정도다.

이는 이들 상품이 주가가 폭락할 때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상품의 경우 한국, 유럽, 중국 등의 주가지수가 하나라도 최초 가격의 60% 밑으로 내려가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다. 만기에 주가지수가 40% 이상 떨어진다면 최소 40%, 최대 100%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는 다른 은행 상품들도 비슷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일어났다.

한국, 유럽, 중국 등의 주가지수가 모두 최고점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2008년 출시된 주가연계상품의 70% 이상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냈다.

은행권 주가 연계상품의 잔액이 15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고객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각 은행에 주가 연계상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고객에게 위험도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저금리시대에 투자 대안으로 부상한 파생금융상품에 금융 이해도가 높지 않은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부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런 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전력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은행명	금전신탁 배당률			정기예금 금리		
	신종직접	비과세	근로자우대	3개월	6개월	12개월
우리	-	-	-	1.80	2.05	2.30
외환	-	-	-	2.15	2.20	2.25
SC은행	2.25	2.07	2.20	2.00	2.00	2.15
하나	-	-	-	1.70	1.80	1.90
한국씨티	1.19	1.13	1.11	1.70	1.82	1.85
신한	1.84	1.92	1.75	1.85	1.95	2.10
국민	-	-	-	2.01	2.12	2.18
산업	1.49	1.69	1.19	1.74	1.85	1.88
기업	2.22	2.35	1.90	1.95	1.98	2.01

공무원연금 개선 안하면 6년 후 평균 수령 284만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남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24만원(9월 기준)인 2014년 9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원, 2018년 26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인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6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5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로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수령액이 2020년을 기준으로 16만원 가량 감소하지만 여전히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상조회사 폐업 급증...보상 건수 3년간 1만7000건

상조회사 폐업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여의 기간에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7000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6710건, 금액은 82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에서 지난해 4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보상액이 급증한 것은 폐업한 상조회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92개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개사, 2012년 5개사, 2013

년 54개사, 올해 들어 지난해까지 25개사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2010년 말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설립 인가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회원 상조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받은 회비의 일부를 담보금 형태로 받는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공제조합은 이 담보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자와 금액 등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 보상 연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회비를 받아놓고도 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美FOMC 결과에 출렁 코스피 지수 조정 불가피

지난주 미국과 유럽증시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전 및 ECB의 회사채 매입 가능성에 힘입어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도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1925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하며 아쉬움을 주었다.

국내증시의 상대적 약세는 국내경기의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9% 성장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3.2%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5분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수출대내 내수(민간 및 정부소비)가 상대적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2분기 세월호 참사에 따라 위축되었던 민간 및 정부소비가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그 폭이 크지 않아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글로벌 경기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기업투자 유도 정책 제시에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뚜렷하게 회복 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어 당분간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가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기 흐름은 정부 및 한국은행의 경기부양 의도에에도 당분간 현 수준의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엘런그레이가 10월 양적완화 종료로 시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주 28~29일에 열리는 미국 FOMC 결과는 글로벌증시 및 국내증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9월 18일 FOMC 이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는 2.65%에서 약세로 전환되며 10월 15일 2%를 하회하기도 하였다. 양적완화 종료 이후 정책금리인상이라는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최근 조기금리인상 우려는 해소된 상태에서 이번 FOMC가 최근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양적완화 시점을 연기한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연말까지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코스피지수도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외국의 수급개선과 함께 2000포인트선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FOMC가 최근의 경제지표호전 및 기업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0월에 예정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한다면 최근 반등세를 보였던 글로벌증시는 경기 및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며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도 코스피지수 저점을 테스트하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주는 해외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회의결과를 지켜보거나 개별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부지점장>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경 6723	2	장성군 남면 덕성리 196-1250㎡ [공유자장 목적의지분3분의1부담현상, 전세면적지분7분의2지분]	전	116,250,000 116,250,000	수목포함매각
2014타경 9936	1	곡성군 옥곡면 하현리 산296-6 21316㎡ [분양임대, 분묘기초, 분묘기초상임여지외]	임대	89,527,200 89,527,200	4타경20705 [중복]
2014타경 11824	1	대구시 서구 서문동 산260-11 501㎡	임대	73,146,000 73,146,000	
2014타경 13325	2	화순군 동면 서성리 196-17 701㎡	임대	117,768,000 117,768,000	
2014타경 14021	1	나주시 돌강면 곡천리 1427-2 4764㎡	전	44,694,000 44,69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4타경 15338	1	화순군 북면 팔리 산98 13884㎡ [이경노, 이]	임대	9,256,000 9,256,000	공유자우선매수권 경오3분의2지분전부
	2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임대	344,000 344,000	공유자우선매수권 전부
2014타경 2448	1	담양군 곡성면 대성리 산2-5 22237㎡	임대	2,783,538,410 2,783,538,410	제시외건물포함
	2	동소 879-4 8071㎡	대		목책3부속건물1층 168㎡ 사무실, 2층13 68㎡ 회의실, 1층43 .68㎡ 반소, 2층39. 52㎡ 사무실, 휴게 실현면적270.23㎡
	3	담양군 곡성면 상하리 산2-9 264㎡ 제시외	대	144,888,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3028	1	담양군 곡성면 상하리 산2-9 264㎡ 제시외	대	144,888,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	동구경향로266 242.76㎡ [2002.66㎡ 지주 장2층261, 16㎡ 면적중, 미용원, 목책형3층260.78㎡ 이용원, 목책형 4-5층각260.78㎡ 6층55.89㎡ 4-6층각여건 제시외 보일러실14.0㎡]	대	1,080,322,720 1,080,322,7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일부도 문서등및단인점용 , 목책2-5,6층각현 황일부주택
2014타경 13899	1	대구시 서문동 산260-11 501㎡	대	73,146,000 73,146,000	
	2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대	344,000 344,000	
2014타경 14168	1	대구시 서문동 산260-11 501㎡	대	73,146,000 73,146,000	
	2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대	344,000 344,000	
2014타경 6723	1	장성군 남면 마령리 985 1174㎡ [양전해영의상속인공유자장경목적지분8218분의2487전부및현상, 전세면적지분8218분의1658전부[수목매각포함]	전	25,275,000 25,2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공유자우선매 수권행사는1회만 허용
	2	장성군 남면 마령리 985 1174㎡ [양전해영의상속인공유자장경목적지분8218분의2487전부및현상, 전세면적지분8218분의1658전부[수목매각포함]	전	25,275,000 25,27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공유자우선매 수권행사는1회만 허용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9012	1	광안구 장선로 261, 5층 501호 [신항동, 드림프라자] 185.3㎡	대	357,000,000 357,000,000	현황사무실로이용
2014타경 13028	1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502-9 264㎡ 제시외	대	144,888,2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3899	1	대구시 서문동 산260-11 501㎡	대	73,146,000 73,146,000	
2014타경 14168	1	대구시 서문동 산260-11 501㎡	대	73,146,000 73,146,000	
2014타경 14168	2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대	344,000 344,000	
2014타경 14168	3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대	344,000 344,000	
2014타경 14168	4	동소 2-3 258㎡ [이경노, 이경오3분의2지분]	대	344,000 344,000	

● 최고의 부동산 매각 포커스는 실거래 대금의 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매각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여 최고가매수권인자로 매각대상(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에는 매각대상(농지)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대상으로 삼습니다.
2. 매각대상: 민사청구권 1400만원 또는 유선매수권금 한 금액 그 이상으로 최고가 매수권자에게 매수권금 10% 이상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대상(농지)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3.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4.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5.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6.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7.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8.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9.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10.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11.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12. 매각대상: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상(농지)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2014. 10. 2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